

시론

김 선 기
전남도립대 웰니스학과·문화평론가

유독 그리운 게 많아진 연말이다. 어떤 건 이미 사라졌고, 어떤 건 지금도 눈앞에서 조용히 흩어진다. 이상한 일이다.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말이다. 우리는 늘 새것을 향해 움직이지 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것들이 남긴 온기가 가장 오래 머문다. 그리움은 그래서 지금보다 과거가 더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지탱해준 시간이 있었다는 증거에 가깝다.

생각해보면, 그리움은 사라짐의 뒤편에 남는 잔향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무언가가 사라지는 순간을 제대로 바라 볼 틈조차 갖지 못한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헤아려보내야 하는지 판단할 여유가 없다. 속도가 삶의 기준이 되고, 효율이 인간관계의 조건이 되면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의 감각들이 하나둘 자리를 잃는다. 느리게 걷는 습관, 한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마음, 관계가 깊어질 때까지 버티는 인내 같은 것들 말이다.

그리운 것이 사라지는 까닭은, 아마도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아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기다림이 삶의 일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그 사이의 시간까지도 관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은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답변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마음을 정리할 틈도 없이 새로운 관계와 일들이 밀려온다.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는 깊은 감정이나 오래된 정이 자리를 잡기 어렵다.

그리움의 대상들은 대부분 느린 시간 속에서 자란 것들이다. 요즘의 관계는 상황의 흐름에 맞춰 연결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쉽게 흩어진다. 억지로 잡아둘 수는 있지만, 관계가 가볍게 스칠 수록 그리움이 남을 여지도 줄어든다. 오래된 친구가 유난히 그립게 느끼는 이유는, 그 관계 안에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감정의 쓰임도 달라졌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와 SNS를 통해 자극적인 정보를 접한다. 기쁜 일도, 화날 일도, 슬픈 일도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 감정이 깊어질 틈이 없고, 깊어진 감정이 기억되기 전에 다른 사건들이 덮어버린다. 감정이 알아지면 기억도 알아지고, 알아진 기억은 금세 지워진다.

그리움은 결국 기억의 또 다른 이름인데, 기억을 천천히 쌓을 환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운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라 해도, 그리움 자체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소중하다. 그리움은 잊어버린 것의 목록을 적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이다.

과거가 그리운 이유는 그 시절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때의 나를 지탱해주던 무언가가 지금의 삶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사실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잊어버린 감정의 방식이며, 한때 가졌던 삶의 태도다.

그러므로 연말이 주는 그리움은 슬픈 감정 만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순간이다. 이미 사라진 것에 매달릴 필요는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귀하게 다루는 일은 가능하다. 서로에게 시간을 조금 더 쓰고, 관계를 쉽게 단정 짓지 않고, 감정을 깊이 사용하는 것.

그런 태도들이 쌓이면, 내년 이맘때 우리가 떠올릴 그리움은 지금보다 더 따뜻한 기억이 돼 있을 것이다. 사라짐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떤 형태의 그리움을 남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2026 주민주권형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

자치칼럼



이 용 인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향한 숨 가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빛의 혁명정신에 따라 새로운 국가 비전을 국민주권시대로 제시한 이재명정부가 2025년에 국정의 방향과 기틀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설 채비여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구나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민주권시대는 새해 지방선거와 민선 9기 지방정부를 통해 주민주권시대로 활짝 열릴 것이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주민주권에 뿌리를 두고 확대된 개념이고, 국민주권은 주민주권을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 로컬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마을과 골목의 주민자치가 국가의 의제와 국민주권을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길이기에, 새해에 들어 설 주민주권형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아울러 새해는 민선자치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을 향한 힘을 마련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숙과 내실의 마을자치로 혁신해야 한다. 지난 11월 19일 울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민선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에 의하면, 주민들은 민선자치 성과를 27.5%, 주민의견반영 민주성을 22.3%, 자치단체 흥보 신뢰도는 36.6%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23.1%에 불과한 중앙·지방재정간 불균형 구조가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여전한 현실과 민선자치의 낮은 효능감, 동원된 참여의 형식성이 주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실망을 겉어내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나의 주인이듯, 당연히 지방의 주인은 주민임을 다시 확인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체감하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마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방자치 혁신의 목표를 ‘주민주권형 지방정부 구현’으로 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기대되는 바 같다.

주민주권형 지방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는 지방정부 주권자로서 주민참여 결정권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의 세 분야 11개 과제이다. 여기에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전면 도입하고, 마을기업,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며, 읍면동 주민선출제와 전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설치 및 마을단위 결정권 부여가 들어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기준 현실화, AI 빅데이터 기반 주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사회연대 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지역순환형 사회연대경제구조 확립 등을 행안부가 실천 할 핵심 과제로 확정하고, 조직개편도 마련했다.

그동안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주민자치 법제화는 지난 11월 27일 지방자치법 17조 2항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사회연대·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입법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주권형 지방정부를 뒷받침할 법 제도화가 마련돼가고 있다.

지난 12월 5일 대전에서는 대전공동체연합회 주최로 포럼을 열고, 대전시와 자치구의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으며, 다른 시도들도 발빠르게 준비에 들어갔다.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시군구도 주민주권형 지방정부 실천을 위한 정책 제도적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으기 위한 ‘주민주권형 지방정부 포럼’도 운영하여 새해 민선자치 혁신의 길에 나서길 기대한다.

/이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실천

독자투고

연말이 다가오면 지역 곳곳에서 활기를 띠고 술자리가 부쩍 늘어난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무의식적으로 느슨해지기 쉽다.

그러나 “한두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순식간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예방은 누구도 예의일 수 없는 공동의 책임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주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를바 ‘술타기’ 행위까지 명확히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처벌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이러한 행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정역 또는 범금형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음주운전을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보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법적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문제는 단속 강화나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법적 처벌이 한층 강화된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의 경각심과 실천 의지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선택, 함께 자리한 주변 사람들을 쟁기려는 마

음, 그리고 한 가지 술로 1차만 하고 늦어도 9시까지만 즐기는 ‘음주운전 균열 4대 수칙’을 지킨다면, 음주운전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신임 경찰관으로서 필자는 이러한 주민들의 작은 실천이야말로 지역사회에 안전을 지탱하는 확실한 힘임을 현장에서 자주 느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일은 경찰관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책임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 그리고 더 건강한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정민우·신안경찰서〉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니언

本土 說

또 무너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도 ‘인재’

2025년 12월 광주가 또 무너졌다.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매몰된 노동자 4명 모두가 안타깝게 희생됐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부실 시공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인재(人災)’에 무게가 실렸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던 2층 옥상에서 철제 시설물이 갑자기 끊어지며 순식간에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덮쳤다. 경찰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6개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증거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지대가 없는 공법으로 시공하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주민 집단 민원으로 폐쇄된 협오 시설을 활용한 광주대표도서관 조성 사업은 시공사 부도 위에 악재가 이어졌다. 지하 2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만 1천 286㎡ 규모로 516억원을 투입, 소멸·갈등 등의 공간에서 소생·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

기는 상무 복합문화커뮤니티타운 선도 사업이지만 한차례 연기된 내년 하반기 개관도 불투명하다. 시민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참사가 반복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계속 희생자는 생겨나고, 유가족의 슬픔은 커지고 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중대재해의 연속이다. 광주시는 관리 감독체계에 대해 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관련 매뉴얼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 철거 건물이, 2022년 1월엔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가 붕괴돼 다수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또한 비슷했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철근들은 얹고설킨 실뭉치처럼 힘 없이 휘어져 있어 첨후한 모습이다. 일터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희망을 전면 방지하지 말라.

국가사업 인공태양 나주 확정은 에너지 전환의 시작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핵융합(인공태양) 연

구시설 부지가 나주시로 확정됐다. 사업비만 1조 2천억원에 이른다. 글로벌 에너지 종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전남부서 규모와 필요 업무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자 업무협약을 준비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선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결과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주민 수용성 또한 높았다. 단 한 건의 자연재해도 없는 안정화된 지반은 물론 진입 도로, 송전·배전망, 호남고속철도 KTX 나주역, 무안국제공항 등 접근성도 우수하다. 한국에너지공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력 및 관계사 등 인적 기반 시설도 탁월하다. 지역 사회의 굳건한 지지 덕분으로 품에 안았다. 2027년 착공, 2036년 완공 목표도 순탄하게 진행돼야 한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 등 연료를 플라스마 상태에서 1억 ℃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해 원자핵을 융합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와 유사해 인공태양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대안민국 에너지 수도에 자리하는 게 맞다. 역사적 대전환이 시작됐다. 나주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어 균형발전의 심장부로 기대를 모이고 있다. 이번 주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환영하는 대규모 축제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도 열렬한 지원을 등에 업고 국가 전략산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 청년 인재가 돌아올 것이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도 불린다.

광주·전남 전체 동반 성장의 기폭제라 할 만하다.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날개를 달았다. 첨단기술 개발과 실증, 인재 양성 과정에서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광주경기자총협회는 “연구시설 구축으로 약 1만명의 고용 창출과 2천여명의 전문 연구 인력 유입이 예상돼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 일자리 제공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에 자리하는 게 맞다. 역사적 대전환이 시작됐다. 나주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어 균형발전의 심장부로 기대를 모이고 있다. 이번 주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환영하는 대규모 축제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도 열렬한 지원을 등에 업고 국가 전략산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 청년 인재가 돌아온다. 이는 대안민국의 혁신으로 차별화된다. 토끼등·종마리재·장불재·임석대·서석대·임석대부근의 주상절리와 허안·눈꽃으로 유동인 심오한 설원의 바닷속이다. 이윽고 상고대가 자욱히 피어난 고지대 풍경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 파란 하늘과 대비된 눈에 달한 무등의 선박의 설경이 인출한 선명하고 감동적인 색감의 또 다른 예술이다.

동천(冬川) 아래 슬며시 무등이 내려놓은 것은 오월의 기억이다. 무등과 절벽했던 9일간, 사방으로 포위된 도시는 고립무원이었다. 조여오는 종업감으로 질식할 것 같은 도시는 뜰을 몽쳤다. 강암폭력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다. 진실은 애곡되고, 위증하기 바빴기에 풀어 놓고 나아가야 했다. 무등 만이 믿음이었다. 푸른 일새스치는 바람결에 귀를 쟁이며 풀에 걸친 운동장을 즐겼다. 때가 되면 용서하라 말씀하신다. 〈윤상한·시인〉

아침을여는 詩

눈에 묻힌 무등산

임원식

하늘 아래 나 혼자

우뚝 여기 서 있노라

더없이 높고 크고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굽어살피던

무등이 오늘은 두꺼운 솟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들어 계신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저 강침기 광주학생 항일운동에서

1980년 5·18 민주항쟁